

## 제 5 강. 십자군 전쟁 : 가톨릭과 이슬람

오늘은 ‘십자군 전쟁’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십자군 전쟁’ 다 들어 보셨죠? 영화나 소설의 소재로도 많이 다루어진 것이 ‘십자군 전쟁’과 ‘기사단 이야기’ 입니다. 한마디로 ‘비극의 역사’입니다.

십자군 전쟁은 그냥 일반 전쟁이 아니고, 교회가 일으킨 전쟁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쟁을 일으키고, 하느님의 이름으로 무고한 사람들을 학살하면서, 이것이 ‘거룩한 전쟁’이라고 정당화시켰어요. 교회의 ‘아픈 역사’입니다.

1095 년에 처음 십자군 원정이 시작되었고, 모두 8 차례에 걸쳐서 약 200 년 동안 계속된 전쟁입니다.

이슬람교도들에게 점령된 예루살렘 성지를 탈환하려고 일으켰던 전쟁입니다. 한마디로, 교회가 주도한 ‘성지 탈환 작전’이었죠.

성지를 탈환해야 한다는 명분은 정당할 수 있었겠지만, 교회의 이름으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희생 되었고, 전쟁을 통해서 잔인하고 포악한 인간 본성이 드러납니다.

십자군 전쟁 이전과 이후의 교회의 모습도 굉장히 많이 달라졌고, 특히 그리스도교와 이슬람교 사이가 아주 적대적인 관계가 된 것도 바로 이 전쟁의 결과입니다. 200 년을 죽어라 싸웠으니, 사이가 좋을리가 없죠.

800 여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십자군 전쟁의 후유증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교회는 왜 십자군 전쟁을 일으킨 것인지 그 배경과 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1095 년에 처음 십자군 전쟁이 시작 됩니다. 당시 중세 사회는, 성지 순례가 상당히 유행하고 있었어요.

사도들이나 성인들이 활동 했다거나, 신앙적으로 유명한 곳들을 찾아 떠나는 성지 순례는 신앙 생활의 꽃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산티아고 순례길’도 이때부터 생긴 겁니다.

산티아고는 성 야고보의 스페인식 발음이에요. 야고보 성인은 지금의 스페인 북부 지방과 포르투갈 지역에서 선교활동을 하셨고, 성인의 무덤이 거기 있습니다. 선교사들은 죽어서 활동했던 지역에 묻히는 교회 전통이 있었습니다.

야고보 성인의 무덤이 있는 곳에 이상하게 밤마다 별이 엄청나게 아름답게 빛나는 거예요. 마치 별들이 춤을 추는 것 같이. 알고 봤더니, 거기가 야고보 성인의 무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도시를 성 야고보의 스페인식 발음에, ‘별이 춤춘다’는 의미를 합해서, ‘산티아고 데콤포스텔라’ 라고 부릅니다.

‘산티아고 데콤포스텔라’로 가는 순례길이 잘 알려진 ‘산티아고 순례길’이에요.

프랑스 남부에서 출발하는 길, 포르투갈 해안을 따라 가는 길 등 다양한 루트가 있습니다. 중세 시대 때부터 많은 순례자들이 걸어다니면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길입니다.

그리고, 순례자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길 위에는, 순례자들을 위한 숙박 업소나 식당, 작은 성당들이 생깁니다. 지금 산티아고 순례길에 있는 많은 숙박 시설과 식당, 그리고 소성당들은 중세 시대 때 만들어져서 아직까지 이어져 온 것이예요.

이렇게 성지 순례가 유행 했다는 것은 그만큼 교회가 영적으로 성장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비용을 들여서 성지 순례를 갈 수 있었던 것은 그 만큼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었다는 이야기죠.

정치, 사회, 종교적으로 이미 안정적이고 많은 성장을 했고, 영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많이 성장했다는 겁니다.

성지 순례의 가장 중요한 장소는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예수님께서 활동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한 장소, 예루살렘.

예루살렘은 638년 부터 이슬람 세력들이 이미 점령하고 있었어요. 예루살렘은 이슬람교에서도 성지예요.

이슬람교는 610년 마호메트에 의해서, 아라비아 반도에서 생겨난 종교입니다.

‘마호메트’ 혹은 ‘무함마드’라고 하는데, 같은 이름이죠. ‘무함마드’를 영어식으로 발음하면, ‘마호메트 (Muhammad)’입니다.

‘이슬람’은 ‘절대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이슬람 교도’들을 ‘무슬림’이라고 하죠. ‘절대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슬람교도’를 한국어로 ‘회교도’라고도 하죠.

유일하고 한 분이신 ‘알라’ 하느님을 믿는 종교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느님을 ‘야훼’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교는 하느님을 ‘God’ 이라고 부르죠. 이슬람교에서는 하느님을 ‘알라’라고 불러요. 같은 하느님을 다르게 부르는 겁니다.

610년경, 마호메트가 40세가 되던 해였어요.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 서부에 있는 도시, ‘메카’에서 혼자 명상을 하던 중에, 대천사 가브리엘로부터 ‘알라’의 계시를 받습니다.

이때 받은 계시를 기록한 것이, 이슬람교의 경전으로 쓰이는 ‘코란’입니다. 이 ‘코란’을 이슬람교도들은 마호메트를 통해서 전해진 ‘알라’ 하느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요. 마호메트는 하느님이 보내신 마지막 예언자입니다.

‘알라’ 하느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수많은 예언자들을 세상에 보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그 많은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믿어요. 예수님이 신의 아들이었다는 사실은 부정합니다.

성모 마리아도 예언자 중 한 사람으로 존경합니다. 구약 시대의 노아, 아브라함, 모세, 아사악, 요셉도 모두 하느님의 예언자로 믿고, 그 마지막 예언자가 마호메트라고 믿죠.

마호메트를 통해서 하느님의 모든 계시가 완성되었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와 그리스도교를 마지막으로 완성한 종교가 바로 이슬람교라고 믿어요.

마호메트가 초기에 박해를 많이 받고, 옮겨간 곳이 ‘메디나’이고, 여기서 본격적으로 이슬람교의 세력이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메디나가 이슬람교의 3대 성지 중에 하나가 됩니다.

이슬람교의 3대 성지는 마호메트가 계시를 받은 ‘메카’, 주활동 지역이었던 ‘메디나’, 그리고 마호메트가 말을 타고 하늘로 승천했다고 여겨지는 ‘예루살렘’입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은 유대교, 그리스도교, 이슬람교, 세 종교의 가장 중요한 성지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엄청나게 많은 전쟁이 벌어집니다. 아직까지도 거기엔 전쟁 중이예요.

이슬람교는 ‘알라’께 대한 절대적인 복종과 믿음을 바탕으로 하고, 하루 다섯 번의 기도를 무조건 의무적으로 드립니다. 어디에 있던, 무슨 일을 하던, 기도 시간만 되면, 모든 것을 멈추고, 메카를 향해서 엎드려 기도를 해요. 엄청난 믿음과 신앙심, 놀라운 충성심으로 종교 활동을 하며 삽니다.

마호메트가 승천한 이후, 채 500년도 지나지 않아서, 이슬람은 아랍 지역과 중앙아시아, 소아시아 지역에 이르는 대제국을 건설합니다. 예루살렘도 638년 부터는 이미 이슬람 세력들이 점령해 버렸어요.

이슬람 왕국이 초기에는 예루살렘에 그리스도인들의 출입과 성지 순례를 허용 했었습니다. 그런데, 1077년 부터 들어선 이슬람 정권은 그리스도인들의 예루살렘 출입과 종교 활동을 일체 금지합니다.

그리스도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성지가 완전히 이슬람 땅이 되어버렸고, 갈수도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지를 다시 탈환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계속 일어나게 되었죠.

드디어, 1095년에 우르바노 2세 교황이 클레르몽에서 공의회를 소집하고, 예루살렘 성지 탈환을 위한 십자군 원정을 결정합니다.

교회와 귀족들을 중심으로 군대가 소집되고, 엄청난 지원금이 교회를 통해서 모금이 됩니다. 임무는 오직 하나, '예루살렘 성지 탈환'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십자군 원정은 모두 8차례에 걸쳐서 약 200년 동안 계속됩니다.

8번의 전쟁 중에 십자군이 몇번이나 이겼을까요?

딱 한번, 첫번째 원정만 성공합니다. 한번만 이기고, 나머지는 모두 져요.

로마에서 출발한 십자군 제 1차 원정은, 출발한지 3년 쯤 지난, 1099년에 예루살렘 점령에 성공합니다.

문제는 성지만 탈환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과 그 인근 지역에 살고 있던 수많은 유대인들과 이슬람교도들을 마구 학살 합니다. 어린 아이, 여자, 노인 할 것없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다 죽이는 거예요. 아주 잔인하게.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지 탈환에 성공하고, 성지 방어를 목적으로 '성지 기사단'이 만들어 집니다. '요한 기사단'이 그 중 하나였어요.

성지 기사단들은 수도 공동체의 모습을 갖추고 성지를 지킵니다. 함께 기도하고, 미사 하고,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재산도 공동 소유하면서, 성지를 지키는 임무를 수행합니다. 기사단의 일원으로 수도 서원을 합니다.

수사님들, 신부님들이 칼과 방패를 들고, 갑옷을 입고 군사 훈련을 하면서 성지를 방어하는 거죠.

그리고, 성지 기사단들은 성지 순례길 곳곳에 요새를 만들고, 순례자들을 보호하는 임무도 함께 수행하면서, 성지 뿐만이 아니라, 순례길 안전을 확보하는 임무도 수행 합니다.

당시 중세 사회에서 성지 기사단들의 명예는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았고, 후원금과 헌금도 많이 모이게 됩니다. 후에 성지 기사단은 엄청난 부와 명예를 누리게 되요.

십자군 전쟁이 끝난 뒤, 성지 기사단의 재산에 욕심이 난 프랑스 황제 필리프 4세가 음모를 짜고, 성전 기사단을 이단으로 몰아 버립니다.

모든 재산을 빼앗고, 기사들을 잡아들여 죽이고, 기사단을 완전히 해체해 버리죠. 이렇게 성전 기사단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맙니다.

항상 역사를 통해서 드러나지만, 돈과 권력, 인간의 탐욕이 교회를 타락하게 만듭니다.

1차 십자군 원정은 대성공으로 끝났지만, 그 기쁨도 잠시, 겨우 80여년 정도만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있다가, 1187년에 이슬람의 대반격으로 예루살렘을 다시 빼앗깁니다.

이슬람의 영웅 살라흐 앳딘 장군이 이끄는 이슬람 군대가 예루살렘을 다시 점령합니다. 그후로, 예루살렘 성지 탈환을 목적으로 약 120년 동안 7차례의 십자군 원정이 더 있었지만, 모두 실패로 돌아갑니다.

십자군 전쟁은 교회가 일으킨 전쟁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고한 사람들이 많이 학살된 전쟁이었어요. 교회의 아픈 역사입니다. 아주 잔인 했고, 명분도 없었던 전쟁이었어요.

물론, 예루살렘 성지를 탈환하는 것이 명분이었지만, 그 명분은 시간이 지나면서 퇴색해 갑니다.

특히, 제 4 차 십자군 원정 때, 결정적으로 동방과 서방 교회가 갈라져 버리는 비극적인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2 차와 3 차 원정에서 계속 패배한 십자군은 네 번째 원정 때는 배를 타고 진격하기로 작전을 세우고, 베네치아에 집결을 합니다. 그런데, 원정에 참가한 기사들이 수가 너무 적은 거예요. 그래서 배를 빌릴 배삯이 부족했습니다.

이때, 동로마 제국의 왕자가 찾아와서 위험한 제안을 합니다. 동로마 제국의 황제를 암살하고 자신을 황제로 추대해 주면, 그 댓가로 배삯 뿐만 아니라, 십자군 원정에 지원을 해주겠다고 협상을 해옵니다.

그리고, 당시 베네치아 상인들이 뛰어난 상술과 계략으로 설득을 합니다. 결국, 십자군이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동로마 제국을 침공하고 말죠.

동로마 제국의 황제를 암살하고, 수도 콘스탄티노플을 공격해요. 성직자들도 많이 죽입니다. 이때, 동로마 제국이 완전히 분해 되었고, 그후로 동로마 제국은 다시 재건되지 못하고 쇠퇴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이슬람 정권인 오스만 제국에 의해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콘스탄티노플과 지금의 터키 지역이 모두 이슬람 제국에게 점령이 된 겁니다.

동방과 서방은 하나의 제국이었고, 같은 신앙을 가진 교회였어요. 비록 이념과 사상의 차이로 다소 분열이 있긴 했지만, 같은 하느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같은 신앙을 가진 교회였죠. 그런데, 서방 교회가 보낸 군대가 동방 교회를 공격하고, 성직자들과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고, 도시를 약탈하고, 교회 문화재를 파괴하고, 그 결과로 동방 교회와 제국이 멸망의 길로 접어들었으니, 동방 교회 입장에서는 서방 교회와 십자군에게 엄청나게 깊은 상처를 받은 겁니다. 적대감과 증오가 말할 수 없이 컸죠.

그후로 다시는 동방 교회와 서방 교회가 함께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4 차 십자군 원정 때 있었던 사건이었어요.

십자군 원정의 아주 비극적인 사건이 또 하나 있어요. ‘소년 십자군’입니다. ‘어린이 십자군’이라고도 해요.

제 4 차 십자군 원정이 동로마 제국을 기습하고, 예루살렘 성지 탈환이라는 명분과는 무관하게 완전히 실패하고 나서, 그 직후에 ‘소년 십자군’이 결성됩니다.

1212 년 프랑스와 독일을 중심으로 소년들을 십자군에 모집하고, 전쟁터에 앞장 세웁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이들을 사랑하셨고, 어린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하느님 나라에 못들어간다”는 성경 내용을 토대로, 어린이들을 앞세워서 예루살렘 성지를 공격하면, 하느님께서 어린이들에게 특별히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전쟁에서 승리 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겁니다.

물론 어른들이 인술은 했죠. 하지만, 아주 잔인한 발상이었습니다. 어린이들을 총알받이로 전쟁터에 앞장 세운 겁니다.

귀족들이나 권력이 높은 사람의 아이들은 당연히 빠졌겠죠.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의 아이들만 뽑혀서 갑니다. 결과는 완전 실패로 돌아갑니다.

어린이들이 칼과 방패를 들고 전쟁터에서 싸울수나 있겠어요? 어른들의 욕심으로 만든 전쟁에 무고한 아이들이 희생되고 맙니다.

‘어린이 기사단’은 예루살렘에 도착하지도 못하고, 중도에서 병에 걸리거나 쓰러져 죽거나, 아니면 노예 상인들에게 잡혀서 이집트 지역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인간의 잔인함과 포악함, 탐욕과 이기심이 극에 달한 것이 바로 이 ‘어린이 십자군’이었어요.

십자군 전쟁의 결과도 아주 참혹합니다. 동로마 제국도 같은 편인 십자군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었고, 동서 교회는 완전히 분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라비아 반도에서 시작된 이슬람 세력이 예루살렘 뿐만 아니라, 동로마 제국까지 완전히 점령 하면서, 그 세력이 엄청나게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200 년 동안 8 차례에 걸친 십자군 전쟁의 결과로 그리스도교와 이슬람교는 완전히 적대적인 관계가 된 거죠. 생각해 보세요. 장장 200 년 동안 지겹도록 쳐들어 옵니다. 얼마나 큰 적대감이 쌓였겠어요.

또, 십자군 원정 때마다, 계속 실패하면서, 화풀이로 인근 지역에 있던 유대인들을 엄청나게 학살합니다.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처형한 민족이 유대인들이라고 만나는 데로 다 죽입니다. 유대인들은 십자군 전쟁의 무고한 희생자들이 되고 맙니다.

평화의 수호자였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칼을 들고, 무고한 사람들을 학살하고, 그러고도 그것이 '거룩한 전쟁'이라고 스스로를 정당화 했던, 아주 비극적이고 슬픈 역사가 바로 '십자군 전쟁'입니다.

### <요약>

십자군 전쟁 : 교회가 일으킨 비극적인 전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쟁을 일으키고, 하느님의 이름으로 무고한 사람들을 학살. 교회의 아픈 역사.

이슬람교도들에게 점령된 예루살렘 성지를 탈환하려고 일으켰던 전쟁.

이슬람교는 610 년 마호메트에 의해서, 아라비아 반도를 중심으로 생겨난 종교. '이슬람'은 '절대 순종한다'는 뜻. '이슬람 교도'들인 '무슬림'은 '절대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뜻. 유일하고 한 분이신 '알라' 하느님을 믿는 종교.

610 년경, 마호메트가 40 세가 되던 해, '메카'에서 대천사 가브리엘로 부터 '알라'의 계시를 받은 것이 이슬람교의 기원이 됨.

이때 받은 계시를 기록한 것이, 이슬람교의 경전으로 쓰이는 '코란.' 마호메트는 하느님이 보내신 마지막 예언자.

마호메트는 초기에 박해를 많이 받고, '메디나'로 이주, 본격적인 활동 시작. 이때부터 이슬람교의 세력이 급속히 확장.

마호메트는 '예루살렘'에서 하늘로 승천했다고 여겨짐.

이슬람교의 3 대 성지 : 메카, 메디나, 예루살렘

마호메트가 죽은지, 채 500 년도 지나지 않아서, 이슬람은 아랍 지역과 중앙아시아, 소아시아 지역에 이르는 대제국을 건설.

예루살렘은 이미 638 년 부터 이슬람이 점령. 초기에는 예루살렘에 그리스도인들의 출입과 성지 순례를 허용 했지만, 1077 년 부터는 그리스도인들의 예루살렘 출입과 종교 활동을 일체 금지.

이때 부터 교회의 주도로 예루살렘 성지 탈환의 움직임이 일어남.

1095 년, 우르바노 2 세 교황이 클레르몽 공의회에서 예루살렘 성지 탈환을 위한 십자군 원정을 결정.

교회와 귀족들을 중심으로 군대 소집, 엄청난 지원금이 교회를 통해서 모금.

모두 8 차례에 걸쳐서 약 200 년 동안 계속된 전쟁. 십자군이 승리한 것은 딱 한번, 제 1 차 원정 뿐.

로마에서 출발한 십자군 제 1 차 원정은, 1099 년에 예루살렘 성지 점령에 성공. 이때 예루살렘과 인근 지역의 많은 유대인들과 이슬람교도들을 학살. 잔인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지 탈환 후, 성지 방어를 목적으로 ‘성지 기사단’이 설립. 수도 공동체의 모습을 갖추고 활동. 순례자들을 보호하는 임무도 함께 수행.

많은 사람들이 지지와 함께, 성지 기사단에 많은 후원금이 들어오고, 십자군 전쟁이 끝난 뒤, 성지 기사단의 재산에 욕심이 난 프랑스 황제 필리프 4 세가 음모를 짜고, 성전 기사단을 이단으로 몰고, 기사들을 죽이고, 기사단을 완전히 해체.

1 차 십자군 원정으로 탈환된 예루살렘은 1187 년에 살라흐 앗딘이 이끄는 이슬람의 대반격으로 다시 빼앗김.

이후, 예루살렘 성지 탈환을 목적으로 약 120 년 동안 7 차례의 십자군 원정이 더 있었지만, 모두 실패.

제 4 차 십자군 원정의 결과: 동방과 서방 교회가 완전히 갈라짐. 동로마 제국의 왕자와 음모를 짜고, 동로마 제국을 침공, 황제 암살, 수도 콘스탄티노플 약탈. 이후에 동로마 제국은 쇠퇴의 길을 걷게 되고, 결국 이슬람 정권인 오스만 제국에 의해 완전히 멸망.

서방 교회가 보낸 군대가 동방 교회를 공격하고, 성직자들과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고, 도시를 약탈한 결과, 동방 교회는 서방 교회와 십자군에게 엄청나게 깊은 상처를 받게 됨. 이후로 동방 교회와 서방 교회는 더이상 함께 할 수 없게 됨.

‘소년 십자군’ 또는 ‘어린이 십자군’ 결성. 1212 년 프랑스와 독일을 중심으로 소년들을 십자군에 모집하고, 전쟁터에 앞장 세움. 어른들의 욕심으로 생긴 전쟁에 무고한 어린 아이들이 희생.

십자군 전쟁의 결과 :

동서 교회의 완전한 분열.

이슬람 세력이 예루살렘 뿐만 아니라, 동로마 제국까지 점령, 엄청난 세력 확장.

200 년 동안 8 차례에 걸친 전쟁으로 그리스도교와 이슬람교는 완전히 적대적인 관계.

인근 지역의 많은 유대인들 학살

평화의 수호자였던 교회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칼을 들고, ‘거룩한 전쟁’이라고 자기 정당화.

비극적이고 슬픈 역사를 남긴 전쟁.